단 군

글 리광일, 손순진
그림 박철남, 박창철

무술훈련장
슈
슛
휘이익
익
쉭
쉭
탁
탁

음!
쿵
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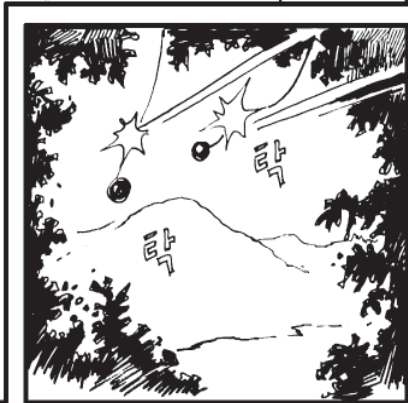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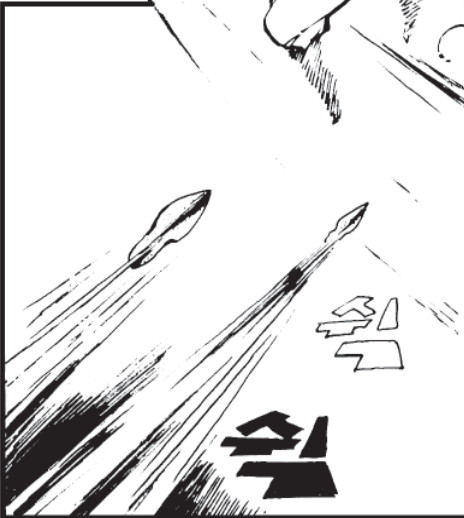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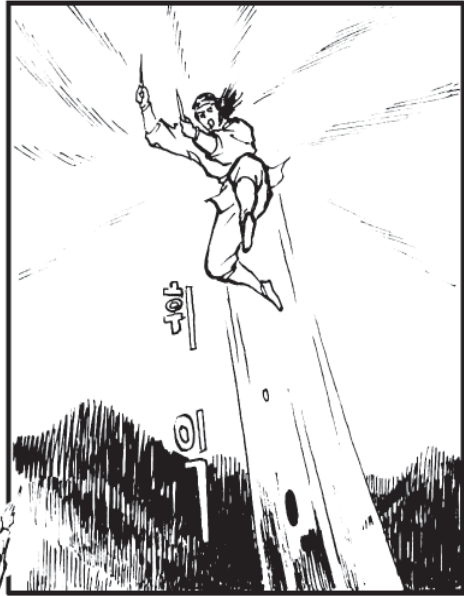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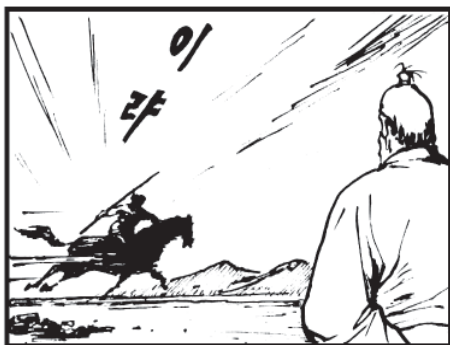
이랴

휙

단군이 무술훈련을 얼마나 하였던지 말발굽에
흙이 다져져 풀이 돋지 못하고 붉은 흙이 드러나
있다 하여 이 산을 붉뫼라고 불렀다.

딱

모사, 저의 무술솜씨가 어떻소이까?

그렇게 피타게 노력하시더니… 현재 족자와 무술을 겨룰만 할 사람이 없소이다. 정말 훌륭하오이다.

그럼 어쩔테냐?

한다하는 장수라기에 한달음에 와보니 애송이로구나.

으하하

으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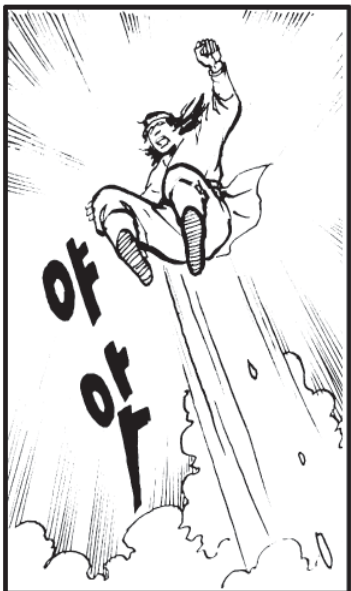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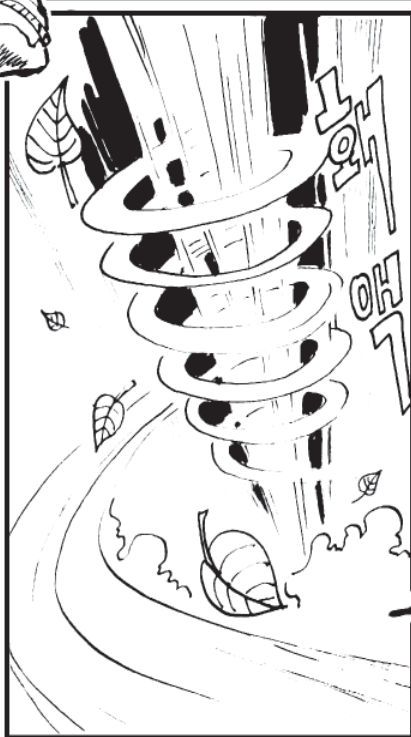
야아아

이놈, 내 창을 받아라.
이놈이...
야앗
쇄애앵
?
?
영
?

신… 신이다!

아달산의
신이다!

하하하

휘익
아달산신이여ㅡ
신을 가려보지 못한 이 놈을 용서하옵소서.
난 신이 아니라 박달족 족자 단군이다.

그럼 환웅족장의
아들?!
?!

난 마고족
족자 여수기
라 하오이다.

이제부턴 단군족자를 형으로
모시겠소이다.
하하
하

우린 가시내들이 아니니 장부답게
화친하세.

헌데 여수기족자는 어인 일로
예까지 왔소?

실은 아달산
에 새 장수가
났다기에…

곰족 족장 치우가 계속
우리 마고족들을 넘보며
달려드는데…

…우리 힘으론 어찌할
도리가 없소이다.

천부경

단군족자, 그러면 안되오이다.
《천부경》을 잊었소이까?

그렇소이다.

하나는 무장이요,
하나는 덕이라 했소이다.

치우 그놈이 우리 박달 족도 줌안에 넣겠다고 흰소릴 친다는데 그래 가만 있어야 하오이까?

제발 심사숙고 하오이다.

음..

단군족자, 전장에서 환웅족장이 불러 이 몸은
그리로 곧 떠나겠소이다.
모사, 족장님의
신변을 부탁하오이
다. 전장에서 부디
몸조심하오이다.
이랴
비서갑

족장님.

부족장이 무슨 일로?
버들족 족장 하백

저… 지금 박달족 족장 환웅이가 몹시 지쳤다 하나이다. 이 기회에 박달족을 공격한다면…

…어렵지 않게 박달족을 평정할수
있다고 보오이다.

심중히 생각하는자
실수 안한다 했소.
족장님의 생각이 그러하다면 전 물러가겠소이다.
게 누가 없느냐?

족자를 불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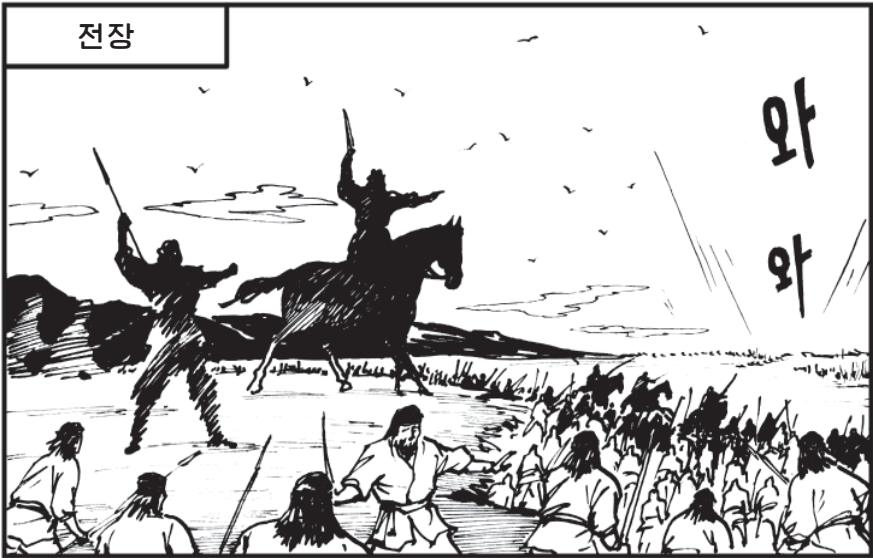
예잇!

전 아부님의 의사를 따르겠나이다.
버들족 족자
신지
음, 과시 족자다운 생각이다.
족자는 그러할진데… 동생 신녀는 어이 그렇질 못한고… 한창 망울터칠 꽃나이여서인지…
그냥 봄바람에 취해있는 그가 족녀다운 행실을 저버릴가보아 걱정이다.

너무 걱정마소이다.
제가 엄히 신칙하겠
나이다.

전장
와
와

박달족 족장
환웅

윽
얏
꺽
악
챙
탱
와
이겼다
만세

환웅족장 초막

모사, 내 그대를 기다렸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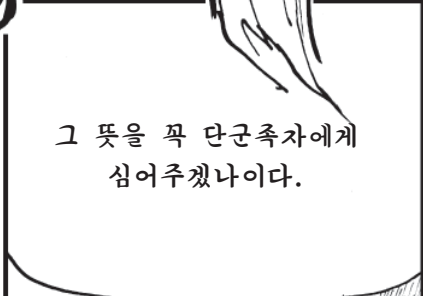
건강하신 족장님을 뵈오니 기쁘오이다.

그래, 단군족자의 일은 잘 되여가느뇨?

그렇단 말이지. 하하하… 그대는 내가 제일 바라고 기다리던 소식을 가져왔소. 정말 고맙소.

모사, 이 몸은 이젠 예전같지 않으니…

…족장봉을 넘겨줄 때가 된 것 같소.

족장님, 제발 쉬이 맥을 놓지 마소이다.
내 말을 막지 마오. 난 한 생을 전장에서 살았소.
그래서 많은 종족을 병합하고 령토도 넓혀왔었지. …모두 이 손으로 통합했어.
헌데 이젠 늙었어.
족장님.
모사.

내 그대에게 부탁하고싶은것이 있다. 그대는 단군족자를 성인으로 만들어 나의 뜻을 이어가게 할지어다.
알겠소이다.
그 뜻을 꼭 단군족자에게 심어주겠나이다.
이제 버들족만 평정한다면 나머지 종족은 그리 문제가 아니다.

한 편
가리달족 족장
실개

우리 가리달족
촌들을 돌아본
감상이 어떠냐?

왜 대답이
없느냐?
?!

그래 우리 가리달족 지경이 너무 협소하다는 생각이
안드는가 말이다.
지당한 말씀
이오이다.

족장님, 우리 간자(간첩)들이 알아
낸데 의하면 지금 박달족 족장이…

…로환으로 마지막숨을 몰
아쉰다 하오이다.

그게 참말이뇨?

그렇소이다.

너는 이제 곧 사르달족 족장
아라가에게로 달려가 내가 급히
만나자 하더라고 일러라.
알았소이다.

하하하… 기다리던
때는 왔다.

이 산을 지나기 께름
한걸. 야, 빨리 실개
족장에게 가자.

사르달족 족장
아라가

휙
휙

인정사정도 없는 이 야만의 무리에 잡히게 됐으니 영낙없이 죽었구나. 아!…

아달산

휙
휙

단군족자는 무술을 련마하여 장차 무엇 하리오?

난 조상의 뜻을 이어 악과 선을 가르고
강력한 종족을 일떠세우자는거요.
그렇다면 어이 곰족의
치우를 치지 않나이까?
치우?
홱
액
휙

?
단군족자,

힘이 세다고 다른 족을 깔보며 소란피우는 치우를 치러 어서 가소이다.

좋다, 그놈을 치러 가세.

이랴!

곰족
챙
챙
얏
얏
탁
툭

음!
휙
곰족 족장
치우

휘익

야!
히야

숲속

?
홰액
?
?

우
우
우
우

단군족자,

저놈들은 마우족인데 사납
기 그지없소이다.

휙
휙

악
웅
윙

핑
쩍
야
휙
휙
휙
휙
휙
욱
악
꺽
!

휙
뻐억
얏
퍽
빡
음
와
와
와

단군족자,
사르달족 족장 아라가가 나무에 결박당해 있소이다.
여기로 데려오게.
단군족자, 이 몸을 구원해주어 정말 고맙소.
천만다행이오이다.

곰족

족장님!

지금 마고족 족자 여수기가 무장들을 데리고 우릴 치겠다고 오고 있소이다.

뭐?! 이 치우와 맞서보겠다구? 야, 가자.
쾅

치우는 내 창을 받아라!
얏
휙
야앗
탁
야앗
빡
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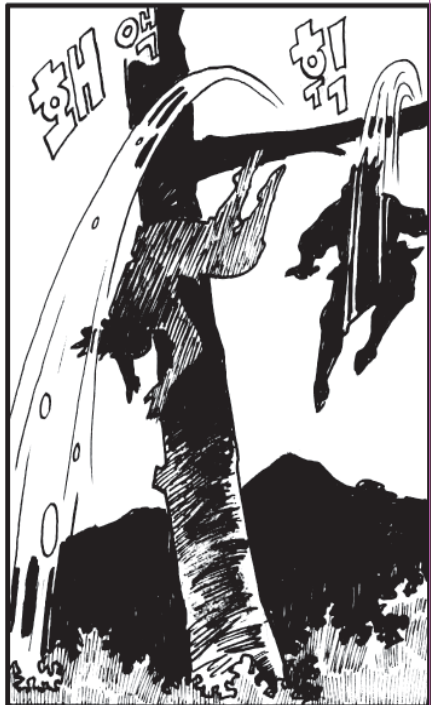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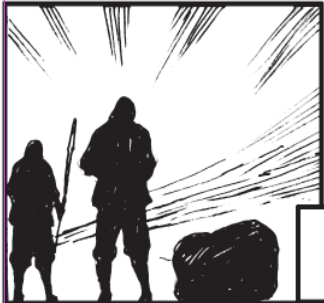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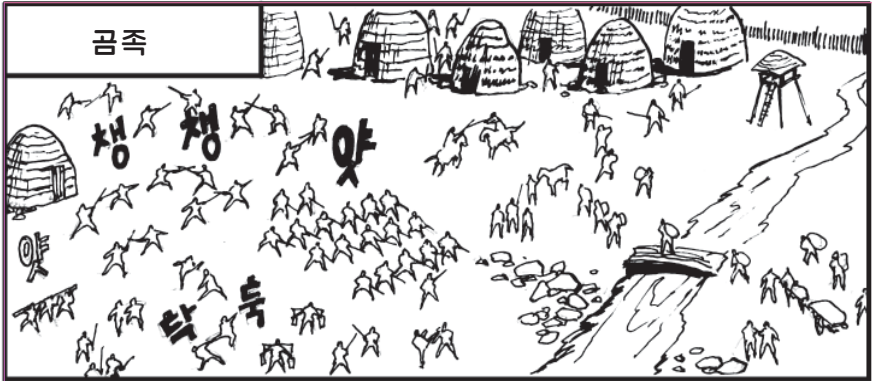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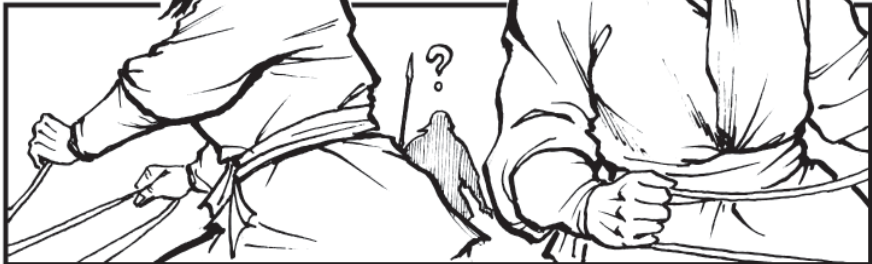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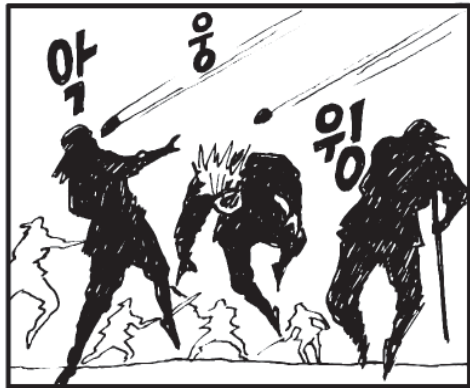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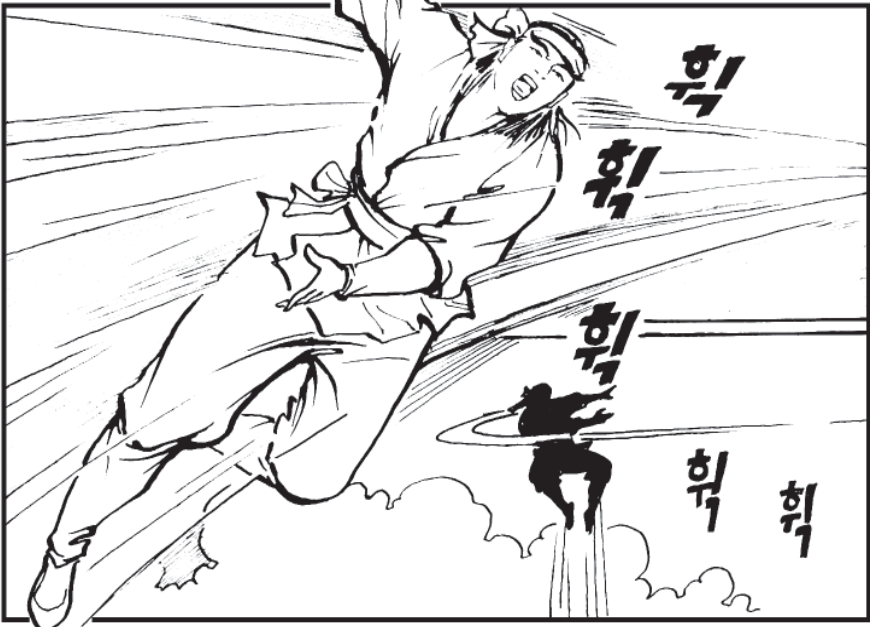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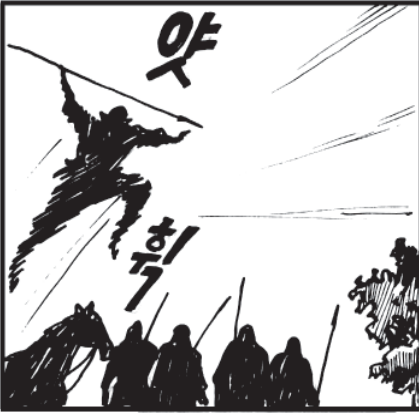
야ㅡ
광
휘익
?

여수기가 위험하다.

휙
악
뻑

쿵
?

박달족 족자 단군이다.

당신은 누구요?

단군족자, 내 그대와 이렇게 만났소구려.
이 미욱한 놈을 용서해주오.

허허, 나도 힘장수로 소문난 치우를 만나고싶었는데… 이렇게 만난것은 다 하늘의 뜻인가 보오.

!

고맙소이다. 내 한평생 단군족자를 받들겠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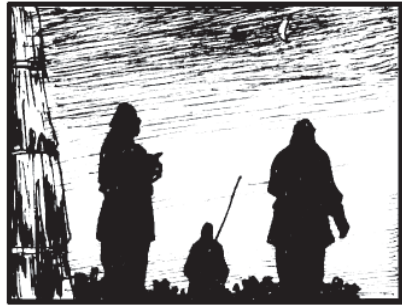
가리달족 족장 막

아라가족장, 드디어
때가 왔소.
?

박달족의 환웅족장이 지금
쯤은 하늘신한테로 갔을런지
도 모르오.
그러니 이때…

미안하오. 난 박달족을 함께
치자는 청을 받아들일수 없게
됐구려.

마우족야만들에게 다 죽게 된 걸 박달족 족자가 날 구원해주었소. 내 어찌 생명의 은인에게 창을 내댄단 말이요.
그럼 난 가겠소.

음, 그랬댔군. 이제와서 발칵 뒤집는다고 순순히 물러설 내가 아니다. 흥.

야, 날밝으면 자객들을 보내여 버들족 족녀를 훔쳐와야겠다.

신녀를 말이오
이까?
그래, 그는 지금
봄바람에 취해…

하루와 같이 아라수(대동
강)가를 거닐고있을테니
실수 말고 데려와야 한다.

명심할건 그를 훔쳐오는 자
객들이 박달족의 족자 단군으
로 행세하는것이다.

예 예?

젠장, 떨긴! 만일 일이 글러지
면 사르달족 아라가의 심복으로
둔갑해야 한다는걸 잊지 말아.
저, 그렇게 되면
단군족자가 제 이
름을 팔았다고 아
라가족장을 무섭
게 징벌하지 않겠
소이까?
으하하
내가 노린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차피 아라가는 단군과 맞서싸워야 할게다. 난 그 기회를 놓치지 말자는거다.

그러니 저희들끼리 싸움을… 정말 족장님의 착상은 천하명안이오이다.
흐흐
하하…

박달족

족장님

아, 아버님, 이렇게
세상을 떠나시면 어떻게
하나이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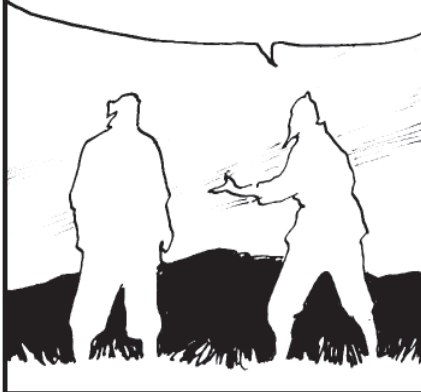
모사, 족장봉이 어디
있소이까?

족장봉은 족장만이 가질수
있소이다.
내가 족자인
데도?

족장을 선출하는건 귀족
평의회에서 결정하게
되여있소이다.

며칠후

단군족자ㅡ

기뻐하시오이다. 방금 귀족평의회에서 족자를 족장으로 천거하였나이다.

응당 그랬어야지. 앞으론 족자가 무조건 계승하는 제도를 만들어놓을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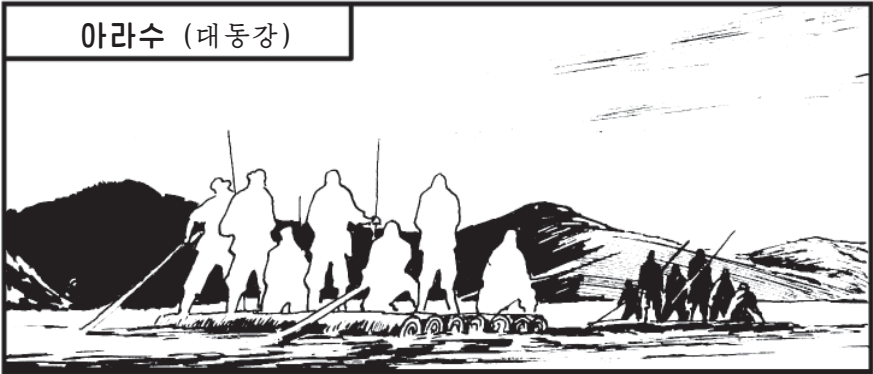
족장님!

?
지금 버들족 족자 신지가…

…무장들을 이끌고 족장님을 치겠다고 우우하며 달려오고 있소이다.

뭣때문에?
모르겠소이다.

모사, 무슨 일인지 모르겠나이까?
혹시 조상난 기회를 리용하자고 그러는지도 모르겠소이다.

조상난 집에 조문이 아니라 창을 들고 쳐들어와? 어디 두고보자!

아라수 (대동강)

족자, 이왕 떠난 걸음이니 아예 박달족을 평정해버립시다.
아니, 난 단군만을 복수할테요.

흥!
바보같은 자식. 이러단 안되겠군.
넌 실개족장에게 달려가 이 기회를 놓치지 말란다고 전해라.
가리달족 족장 막
…호루부족장이 이와 같이 전하라 했소이다.
호루가?! 흐흐흐. 이건 정말 뜻밖인걸!

가서 전해라. 신지가 어떻게 해서든 단군과 맞서싸우게 하라고 말이다.
알았소이다.
오, 하늘신이시여. 이 실개에게 광대한 땅을 다 가지게 해주사이다.
으하하
등판
신지, 넌 도의도 없느냐? 조상을 치르는 사람에게 창을 들고 달려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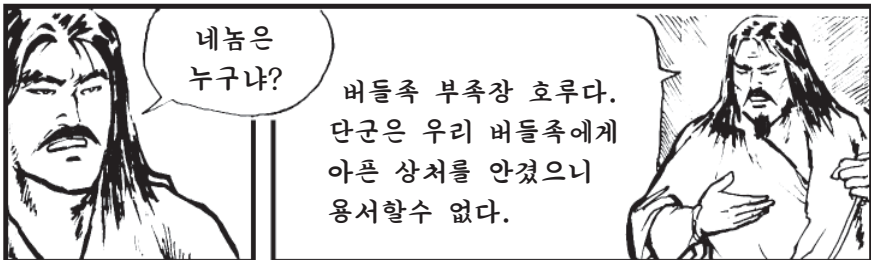
하!

치우장수,
가만.

!

난 단군족자와만 결산
하려왔소.

족자가 아니라
족장이시다.

그건 우리가
상관할바가
아니요.

딱
얏

단군은 나와 맞서보자.
좋다.

신지족자가 승산이 없을 땐 우리 모두가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한다.
알겠소이다.
얏
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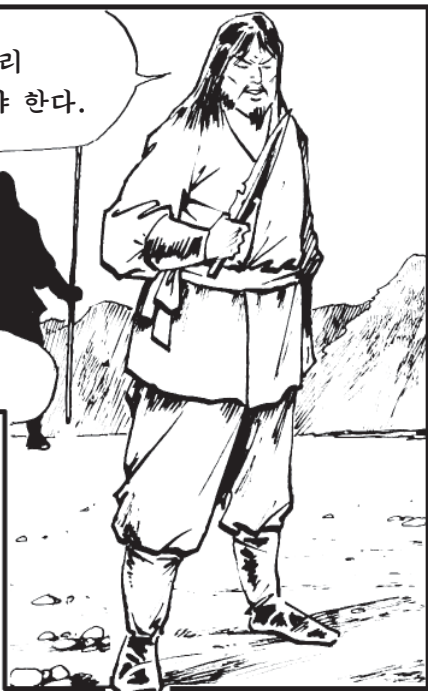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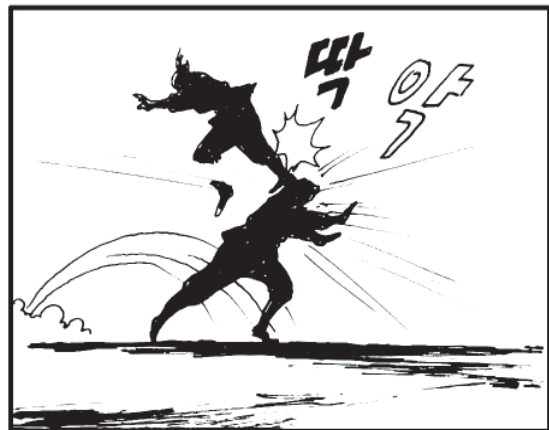
휙
탁
얏

쉭
얏

얏
휙

이얏

얏
쿵

약
딱

그대는 어찌하여 조상을 치르는 나에게 결투를 청해왔는가?
날 죽여도 좋다.

하지만 내 동생 신녀만은 돌려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더 큰 봉변을 당할거다.
신녀란 뭐고 돌려보내란건 대체 무슨 말이냐?

뭐, 신녀?

시치미를 떼지 마오. 그대의 자객들이 아라수에서 그래 우리 신녀를 아니 훔쳐왔단 말이요?

난 그런 너절한짓은 안해. 이걸…

족장님, 환웅족장의 뜻을 어기면 안되오이다.

하지만 모사, 난 족장이기 전에 사나이요.

그럼 내 동생을 내놓던가
아니면 죽을 때까지 겨루
어 보잔 말이요.
야, 단군을 죽여라.
이놈들이?
저놈들을 쓰
러뜨려라.
가만. 물러들
서라.
와

싸우지 말라!

이 기회를 놓쳐선 안된다.

버들족 무장들, 우린 물러
설수 없다. 쳐라.

이놈들, 어디 이 치우의
맛을 봐라.
치우!

얏
웅
?

야 앗ㅡ

팡

박달족 무장들, 난 너희
들의 족장이다.

누가 감히 나의 령을 거역하는가?
모두 물러들 서라.

버들족 무장들, 그만 자중들
하고 물러들 서라.

쾅
에익, 이 좋은 기회를 놓치다니!

단군족장은 자기를
증명해보이시오.

만일 그렇지 못할 땐 우리 버들족전체가 달려들테요.

가자!

허참,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이군.

족장은 그걸 밝히지 못하면
안되오이다.

우선 족녀가 랍치당했다는 아라수가를 훑고 또 여러곳에 파발을 보내여 수상한자들을 알아보는것이 상책일것 같소이다.

그럼 내가 가서 알아보겠소.

족장님,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소이까?

글쎄 을단이란 놈이 우리 촌을
도륙냈소이다.
그게 무슨 소리냐?
난 저기 북쪽새에서 사는
데 을단이라 하는 불량배가
자기 패거리들과 함께 온
마을의 가축들을 훔쳐가지
고 방금 달아났소이다.

뭐라구?
내 당장 그놈들을 잡아 끓는 가마에 처넣겠소이다.
흑
흑
그런 놈은 응당 사지를 찢어 릉지처참해야 마땅하나이다.
옳소이다. 그런자들은 마땅히 엄하게 다스려야 할줄로 아나이다.

음!

죄지은자라고 모두 끓는 가마에 처넣는 한가지 방법으로 다스릴순 없지 않는가? 그렇다면?

모사,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이까?
먼저 버들족 족녀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나이다.

수림

을단형님, 난 더 이상 갈수 없수다.
빨리, 빨리.
을단
석낭, 너 이제 와서 떨어지 겠다는거냐?
방금 해산한 안해가 집에서 날 기다리고있소이다.
가시내보다 못한 자식. 네편네 치마폭이 그리우면 거기에 대가릴 박고 살게지. 잔말 말고 어서 가자.

아라수가

따웅

와삭와삭

따웅

앗! 범이다. 족장, 내가 해치우겠소이다.
치우, 조심하오.

휙
얏
휙
?
취우
따웅
휙
?
휘
?
익
휙
얏
족장님.
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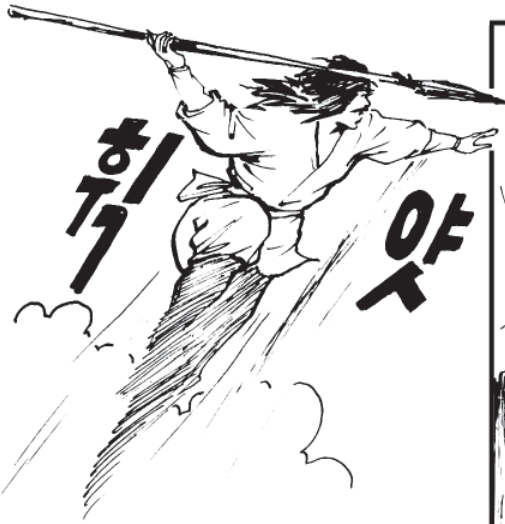
홱
딱

야
족장님이 맨손으로 호랑이를 잡았다.
야
야

쉿, 조용들 하오.
족장님, 저기서 무슨 소리가 나오이다.

저건 가축자루가 아니요?
?

무얼가?
가시내가?!

정신 차리우.
그대는 누군고?
난…
버들족 족녀이오이다.
족녀
?

그렇소. 내가 바로 박달족의 단군이요.

미안하게 됐소이다. 실은 날 랍치한건 사르달족 아라가족장의 자객들이였소이다.

아라가의 자객?

그렇소이다. 그들이 날 랍치할 때 나의 하녀에게 자기들은 단군족자가 보낸 자객들이라 하였소이다. 그래서 아마 …
?

헌데 족녀는 방금 아라가의 자객들이라 하지 않았소.

그들이 날 이 가죽자루속에 처넣고 둘러메고 오면서 하는 소리를 들었소이다.

지금 그놈들이 어디 있소?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나자 어디론
가 달아나고 나도 인차 정신을…

을단이, 《박달족》의 용맹한 사나이, 주저말고 어서들 오게.

실개족장님, 정말 고맙소이다.

그대들은 이 길로 버들족이 사는 비서갑으로 가야겠다. 놀랄건 없어.

거기 부족장 호루의 심복이 되야겠기에 그리로 보낸다. 가서 호루가 시키는대로 해라. 이 일만 성사되면 내 다 생각이 있어.

통합을 하는데 우리 사르달도 결심할 때가 된것 갈소이다.

부족장의 의향은?

우리도 화친을 요구함이 마땅한 줄로 아나이다.

아니, 그건 하나를 얻고 다른 하나는 잃는것으로 되오.

난 실개와 함께 박달족을 치려고 했소. 헌데 뜻밖에도 단군족장의 구원으로 이 몸을 살려내게 될줄이야…

하지만 실개와의 신의 또한 나에겐 중하오.

사람들의 마음을 외면하면 그들이 어떤 눈으로 족장님을 보겠소이까?
대체 부족장은 우리 사르달족이요, 아니면 박달족이요?
난 민심을 거역할 수가 없어 그럴뿐이오이다.
똑똑히 알아두오. 나와 실개는 한 어멈의 젖을 먹고 자랐소.

그럼 족장님의 립장은 대체 뭐나이까?…
모르겠소.
버들족 족장 막
누구야?
신녀?! 너 귀신은 아닐테지?

아부님, 제가 어찌
귀신이겠나이까.
이게 꿈이냐, 생시냐?
아부님, 단군족장이
절 구원해주었소이다.
뭐? 단군족장이?

허, 그런줄도 모르고 이 아비가… 허허…

아부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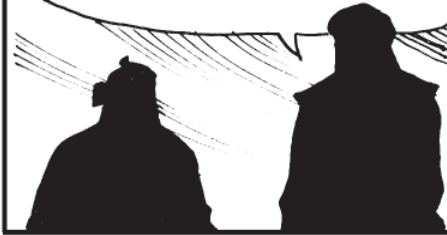
래일 아침 출전 하겠으니 승인하 여주사이다.
?

단군족장에게 준
말미가 오늘로 끝났
소이다.
이하하
아부님, 고정하
시오이다.

신녀를 랍치해간건 단군족장이
아니라 사르달족 아라가의 자객
들이였다. 그리고…

다 죽게 된 신녀
를 구원해준건 단
군족장이다.

음...
...

아부님, 제가 미련하게도 단 군족장을 의심하고 해치우려 했으니 이 길로 달려가 죄를 빌가 하나이다.

알겠소이다.

잘 생각했다. 사내면 마땅히 그래야 하느니라.

산속

족장님.

모사는 떨어지라고 했는데 어찌 따라섰소이까.

이제라도 생각을 돌리시오이다.
날 추한 놈으로 만든 그 놈을 요정내지 않으면 난 사나이기를 포기하겠소.

족장은 어찌하여 가시내의
말 한마디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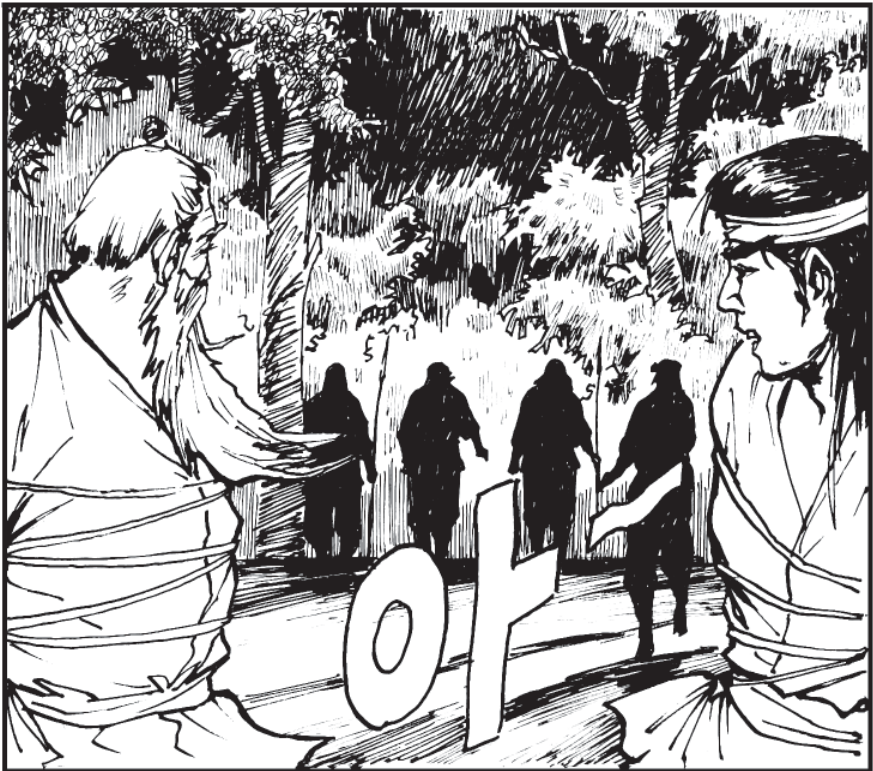
모사는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마오.

동족의 피로 손을 적시려
하나이까? 안되오이다.

그날밤

저벅
저벅

어서 이 두사람을 묶어라.

아

다음날 사르달족
헉
헉
족장님-!

무슨 일이냐?

박달족 단군족장이 수천의 무장들을 이끌고 여기로 막 쳐들어오고 있소이다.
뭐라구?

네눈으로 똑똑히 보았느냐?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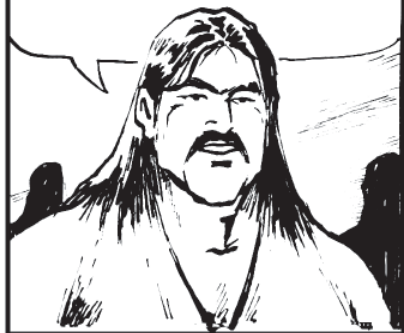
어제는 살려주고 오늘은 죽이려든다? 대체 무엇때문일가? 뭣때문에?…

속히 전체 무장들에게 알려라. 우릴 죽이려 달려드는 이상 사내답게 끝까지 싸우자.

그리 하겠소이다.

족장님은 사르달족 아라가족장을
치러 갔소이다.

한발 늦었구나.

빨리 뒤따라가 도와야겠다.

가리달족 족장 막
족장님, 바람앞에 등불신세가 된 우리 아라가족장님을 제발 도와 주사이다.

알겠다. 넌 이제 곧바로 너의 족장에게로 돌아가 알려라. 우리가 당도할 때까지 기어이 견디여 내라고 말이다.
알겠소이다.

때가 온것 같다. 모든 무장들에게 알려라.

곧 박달족을 치려 아사달로 쳐들어가자고 말이다.
족장님, 방금 아라가 족장에게 지원가겠다고 하지 않았소이까?
으하 하하
어리석은 소리. 아라가는 나의 지원을 믿고 단군과 마지막까지 싸울것이다. 바로 이때 우린 텅빈 아사달로 쳐들어가자는거다. 어때?
히히히히

족장님은 실로 현명
하시오이다.

하하하

이제 멀지 않아 이 실개
의 손에 온 천하가 들어오
게 될것이다.

아라가, 이 여수기의 창을 받아라.
나오라
어디 이 치우와 맞서보자. 아라가, 나오라.

족장님, 치우, 여수기장수가 당장 나와 자기들의 창을 받으라고 소리치고있소이다.

치우? 여수기? 그래 단군 족장은 보이지 않던가?

보이지 않소이다.
그러니 단군은 뒤전에서 팔장 끼고 내가 어떻게 죽는가를 지켜보겠단 말이지?

좋다, 누가 죽는가는
두고보자.

분명 족장자릴
노리고 그러는
것 같소이다.
족장자리를?…

아니, 그들이 족장자리를
노렸다면 얼마든지 나를 죽
였을것이다. 필경 무슨 사
연이 있는것 같애.

족장님, 이상한건 치우와
여수기가 곧장 아라가한테
로 갔다는것이오이다.

저벅
??
저벅

단군족장, 이게 무
슨 일이요?

신지족자가 아니요?
이걸 풀어주오.

실은 전번 신녀일로 사죄도 하
고 족장이 아라가를 치려 한다기
에 도울가 해서 왔소이다.
헌데?…
치우와 여수기가 우릴 묶어
놓고 아라가에게 간것 갈소.

족장, 이 길로 떠나시오이다. 빨리 아사달로 돌아가야 치우와 여수기를 막을수 있소이다.
?!
그렇게 하시오이다.
한편
휘익
야앗
야앗
읏
이놈들, 이 치우의 맛이 어때?
휘익

야앗
야
앗
여수기의
솜씨를 좀
봐라.
악
꽈적
음, 저 치우와 여수기는 나무랄
데 없는 장수들이로구나.
아직도 실개족장한테선 소식이
없는고?
없소
이다.

조금만 더 견디라고 해라.
알겠소이다.

음
챙
댕
껵
악

팍
얏
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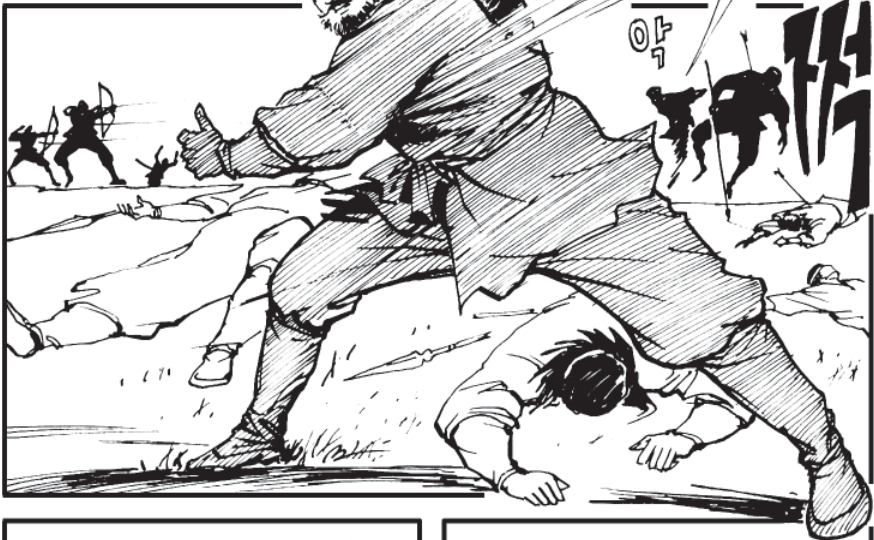
얏

아라가는 창을 들고 나서라!
아라가를 쳐라!

가리달족 족장 실개가 많은 무장들을 이끌고 여기로 쳐들어오고있소이다.

뭐라구?

이 일을 어쩌면 좋소이까? 지금 여기엔 파발무장들밖엔 없으니 정말 큰일이오이다.

우리 버들족 무장들을 부르겠소이다.

버들족 무장들을 부르기엔 너무 늦었소.

한편
을단이, 호루가 보내더냐?
…그렇소이다.

헌데 아사달을 치자는 호루부족장의 제기를 하백족장이 거절했다 하나이다.

흥, 우리 힘만으로도 텅빈 아사달을 먹을수 있다.
자, 앞으로!

족장님, 저기 아사달
언덕에서 단군족장이 우
릴 기다리고있소이다.
도대체
단군이 어떻게
여기에 나타날수 있단 말이냐?
그가 정말 하늘의 아들일가?

좋다, 아무리 날고긴다 하는 단군이라도 수하무장들이 없이야
무슨 수로 우리와 맞선단 말이냐? 계속 전진하라!
저벅
저벅

저벅
저버덕

신지족자, 어서 여기를 떠나 몸을 보존하오.

아니오이다. 난 족장과 함께 죽을 각오가 되였소이다.

고맙소.
신지족자.
단군족장.

무장들, 모두 날 따르라.

야
파팍

악
악
악
악
악
악
휙 휙
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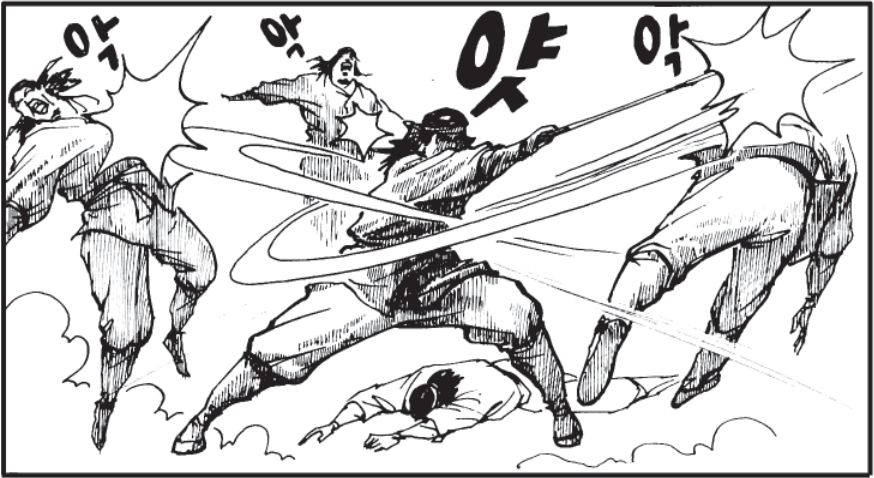
와

놈들을 쳐라.

여수기 장수가 온다!

치우장수가 온다

족장, 저게 누구들 이오이까?

치우, 여수기네 무장들이오이다.

족장님.

족장님, 다친덴 없소이까?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나와 모사를 묶어놓고 그대들이 떠나감은 어찌된 연고요?

원, 사람들두…

치우, 여수기!

하하하

단군족장, 난 이 길로 아부님께 돌아가 박달족과 화친하여…

…하나로 통합되도록 권유하겠소이다.

우리 버들족 사람들이 그들을 복수하자고 모두 웅웅 하고있소이다.

괴이한지고. 앞에서는 화친을 토하고 뒤에서는 란도질이니 도대체 이 어인 일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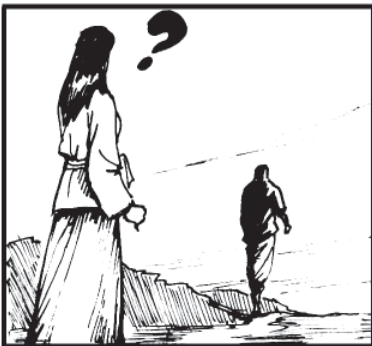
족장님, 대대로 내려온 우리 버들족이 우리 대에 사라진다면 선조들이 뭐라고 하겠나이까.

우리 버들족의 운명문제이니 통합문제로 족장님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나이다.

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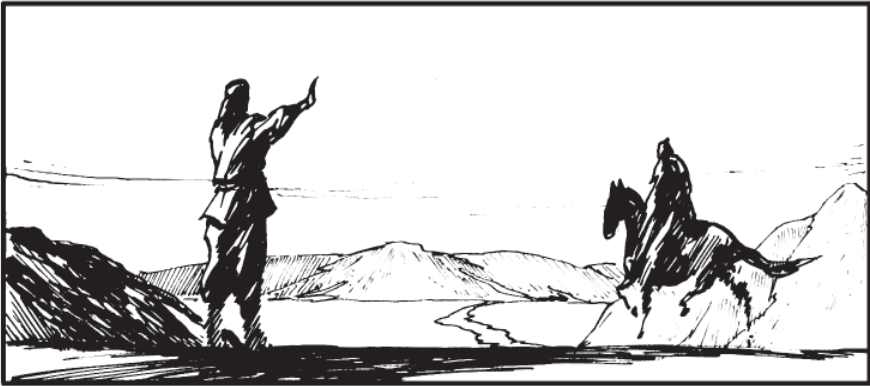
아부님, 제 밖에서 다 들었소이다. 아부님이 박달족과의 화친을 거절하신다면 이 소녀만이라도 단군족장을 찾아가겠나이다.

뭐라구?

이 몸은 단군족장이 구원해주었으니 이 몸을 단군족장에게 바침은 응당한줄 아나이다.

박달족 족장 막
이제 버들 족과의 통합만 성사 되면 만사 가 잘 될것 갈소 이다.
그럼 제가 족장 사신으로 비서갑으로 가겠소이다.

그러면 더없이 고맙겠소이다.

우리 겨레가 하나로 통합되여 모두가 화목하게 사는 새 세상, 강력한 국가를 세우려는 나의 뜻을 잘 리해 시켜주시오 이다.

내 우리 겨레가 이 땅에서 영원히 웃음소리, 노래소리 높이 울리며 살게 될 그런 나라를 꼭 세우겠소이다.

비서갑 버들족 부족장 막

부족장님, 단군의 사신이
딱 뻗치고있소이다.

뭐라구?!
하백족장의 마음을 돌려세우기
전엔 돌아갈수 없다면서…

그렇단 말이지,
그럼 우리
이렇게
하자.
수군 수군

그날밤 모사의 숙소
저벅
?

누구냐?

우리 비서갑을 한 입에 삼키려는 박달족의 흉계를 안고온 네놈을 살려보낼수 없다는것이 우리 하백족장의 뜻이요.
하백족장이?

사신이 제기한 문제는 나의 족자한테서도 수차 들어 알고있지만 그런 중대한 문제를 어찌 쉬이 결심하겠소.
더구나 앞에선 통합을 호소하고는 뒤에선 우리 가축들과 재물들을 마구 략탈하니 도대체 그네들의 속심을 무엇이라 하리오?
그러니 오늘은 푹 쉬고 래일 돌아가 단군족장에게 나의 의사를 전달해주시오.
?

사신은
이 칼을
받으라.

팍
윽!

밖에 말이 매여져 있소이다. 빨리 여기를
뜨시오이다.
그대는
누구요?

전 단군족장을 숭배하는 사람이오이다. 가서 전하시오이다. 하백족장이 저 벌판에 술한 함정을 파놓고 단군족장이 오기를 기다리고있소이다.

함정?!

버들족 족장의 막
아부님, 단군족장은 그런 사람이 아니옵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속은 모른다 했거늘…

우리 버들족 사람들의 생사와 같은 문제니 좀 더 두고봐야겠다.

으흐흐

웬 놈들이냐?
?

족장님, 달도 차면 기울기 마련이니 나이도 어지간한데 이젠 족장자리도 넘길 때가 된것 갈소이다. 히히…

부족장
네놈이?!
호루
개 같은놈!
자, 공손히 자리를
양보하시오이다.
하백족장과 신지족자
를 든든히 묶어 끌어가
거라.
닥쳐라!

박달족
족장님, 버들족과의 통합문제는 뒤로 미루어야 하오이다.

그들이 함정까지 파놓고 기다리는 곳으로 찾아감은 섶을 지고 불속에 뛰여드는 격이옵니다. 그러니 깊이 생각해보시오이다.
하지만 하나된 큰 나라를 세우자면 모험이기는 하나 그들을 찾아가야 한다고 보나이다.

?
! !

족장님, 버들족에서
온 사람이 족장님을
뵙자 하오이다.
나를? …어서
데려오라.
?

족장님, 전 석낭이라고 하옵니다. 제 본의 아니게 을단이라는자에게 끌려 버들족에 들어가 있었소이다. 족장자리를 탐내던 호루부족장놈이 어제 밤 을단이놈과 함께 하백족장과 신지족자를 묶어가지고 떠나갔소이다.

하백족장과 신지족자를?…
석낭, 알려주어 정말 고맙소.

그대는 을단이놈이 하백족장과 신지족자를 어디로 끌어갔는지 알고있소?

곰골에 있는 실개족장한테로 간다 했소이다.

곰골의 실개족장한테?…

모사, 지체함이 없이 그들을 구원하러 떠나야겠소이다.
좀더 생각해보심이 어떻소이까?

아니오이다. 설사 그 길이 함정이라 해도 신지족자와의 의리를 저버릴순 없소이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야 강대한 나라를 세울수 있소이다.

좋다, 오늘밤으로 하백과 신지를 없애버려야겠다. 그 다음엔 단군도… 으하하…

그날밤
저벅
저벅

거 누구요?

마고족 족자 여수기다. 하백족장과 신지족자를 내놓아라.
안돼.

휙
휙

윽
악

족장님,
신지족자.

아, 여수기족자?!

단군족장님이 보
내서 왔소이다.
단군
족장님이?

하백족장님과 신지족자가 호
루부족장에게 묶이워갔다는것
을 알고 우리들을 보냈소이다.

고맙소. 부족장 놈이 날 배반 할줄은…
아부님, 제가 그놈을 도륙내 겠소이다.
한편
족장님, 단군족장이 무장들을 이끌고 막 쳐 들어오고있소이다.
단군? 어디 맞서보자.

이보게 을단이, 자넨 치우를 막으라구.

호루부족장, 자넨 여수기를 치라구. 난 단군과 맞서겠네.

이놈들, 이 치우의 돌맛을 봐라.

위잉
아악

치우 이놈, 내
단검맛을 봐라.

휘익

을단이 이놈, 오늘은 내
손에 죽는 날이다.

악
쩍
얏

이야
아

호루 이놈,
족장자리를 탐내여 그런짓을 해?
여수기, 이 바보같은 놈아. 단군의 부하가 된 네 운명두 몇날가지 못해.
악
야
개수작말아!
얏

얏
윽
여수기, 너 이놈…
여수기족자,
잠간.
호루 이놈, 나와 우리 아부님
을 배반한 더러운 역적놈아.
신지의 주먹맛을 봐라.

개보다도
못한 놈!

오늘은 내가 너한테 패하지만 내 자식들과 부하들이 내 뜻을 이어갈것이다.

자, 어서 죽여라.

실개, 똑똑히 들어라.

하나의 강토에서 온 겨레가 한데 뭉쳐 화목하고 강대한 민족으로 살려는것은 모두의 지향이다. 난 그들의 소망을 이 땅우에 실현시키자고 할뿐이다.

네놈들이 아무리 발악해도
겨레의 이 소원이 성취될
날은 반드시 올것이다.

으음

이 얏

좀스러 운 놈.
휙

야
?

악
빽

으아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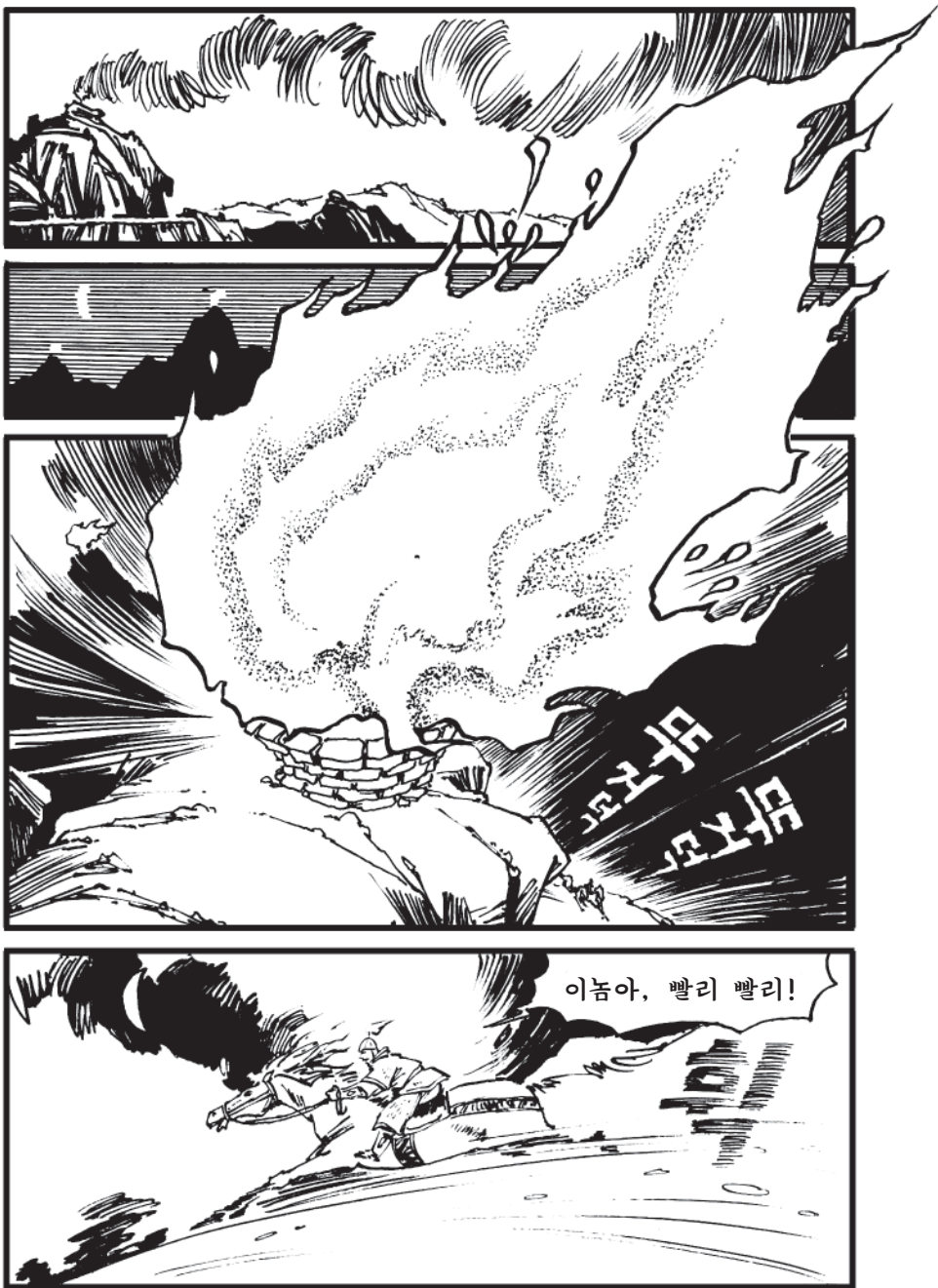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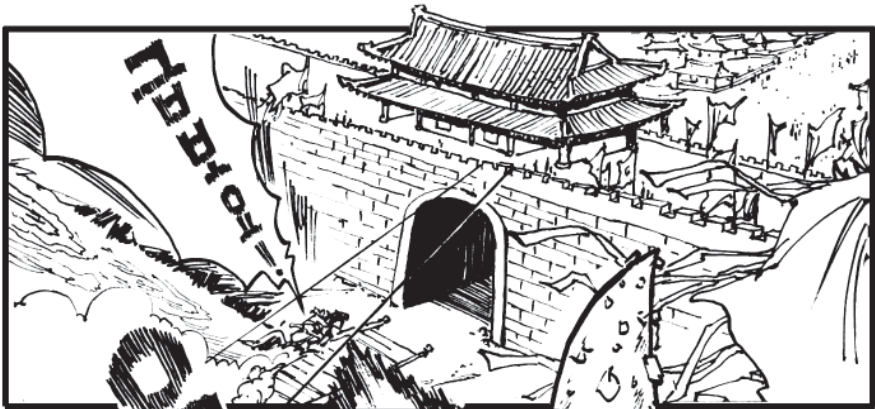
단군족장.
하
하
하
하백족장.
족장님.
단군족장, 미
련한 내 딸을 받
아주면 더없이
고맙겠소.

단군과 신녀는 가정을 이루고 네 아들을 낳았다. 단군의 네 아들은 커서 나라의 기둥감들이 되였다.

맡이 부루는 나라의 최고관직인 호가, 둘째 부소는 형벌을 맡은 웅가, 셋째 부우는 질병치료를 맡은 로가, 넷째 부여는 중앙의 통치를 보장하고 지방을 공고히하는 지방장관을 하였다. 나라의 기틀을 새롭게 마련한 단군은 마침내 동방에서 유일한 첫 국가를 세웠으며 나라이름을 《조선》이라 부르고 부루나를 도읍으로 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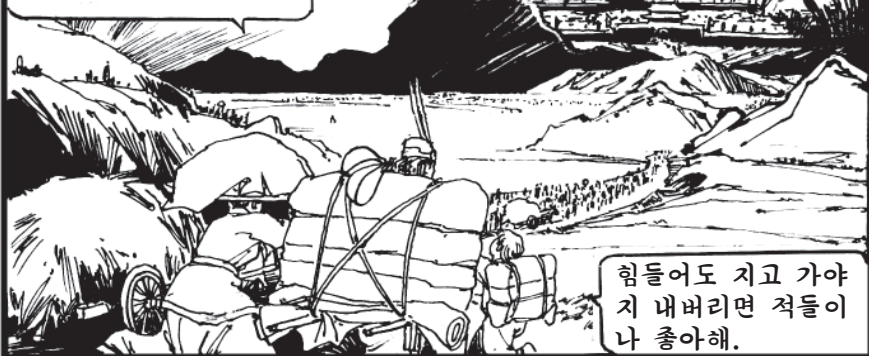
을두지

글 김광수
그림 배인영

이놈아, 빨리 빨리!
휙

급보요!!
부웅
뭐라구?!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느냐?
아뢰오.
한나라의 료동
태수가 수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우리 령토에 침노하였나이다.
웅성 웅성
대왕님, 료동태수는
우리가 수도를 건설하는데 힘을 넣
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심
산인것 같소이다.

우보에게
계책이…
있으면 말해
보라.
우리가 험한 지형을 잘 리용하여 불의에 기습하면 적들을 얼마든지 타승할수 있소이다.
대왕님, 소인의 생각에는 지금의 정세에서 기습전은 적당치 않다고 보오이다. 소인은 지금 기세가 높은 적들을 힘으로 치기 보다는 꾀를 써서 치는것이 옳은 처사라고 생각하옵니다.
좌보는 무슨
수로 적을
치자는거냐?

대왕님, 지금 적들이 침략의 독기가 최대로 올라 날뛰고있는데 그 열기가 사그러질 때까지 국내깊이 끌어들이자는것이옵니다.
뭐?!…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보라.
성밖의 모든 백성들에게 령을 내려 쌀과 소금을 가지고 성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적들이 중도에서 한단의 마초도 얻지 못하게 해야 하옵니다.
그 다음은…
적들이 텅빈곳을 지나 여기까지 오느라면 굶주리고 지치게 되여 결국 사기도 떨어질 것이오이다. 이때 적들을 치면 반드시 승리할수 있소이다.
그대들은 좌보의 계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좌보의 계책을 따름이 옳은줄로 아옵니다.
좌보의 계책이 적중하오이다.

좌보의 계책대로 싸워
적들을 쳐부시자
을두지 군영
그대들은 분담된 성으로 가서 그곳 성주들과 함께 널려사는 백성들에게 우리의 계책을 알려주어 한알의 쌀, 한줌의 소금, 한단의 마초도 남기지 않도록 해야겠다.
알겠소이다.
저… 적들이 먹는 물도 마시지 못하게 모두 메워야 하지 않겠소이까?
옳거니, 우물과 샘물도 적들이 마시지 못하게 해놓으며 적들이 리용할수 있는 모든것을 말끔히 치워 텅비게 해놓아야겠다.
알겠소이다

여보, 힘들지 않소이까?
힘들어도 지고 가야지 내버리면 적들이나 좋아해.

한편
그리하여 마을은 쌀 한알, 소금 한줌, 물 한방울없이 텅비게 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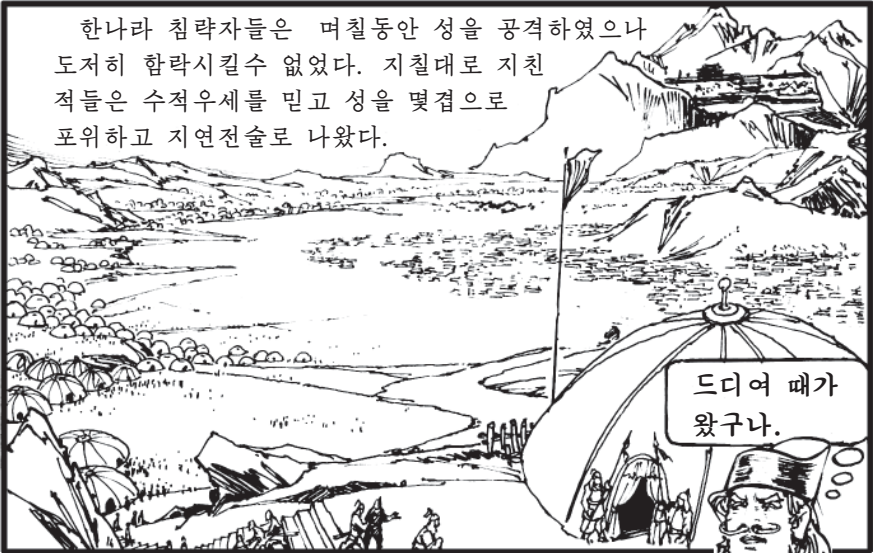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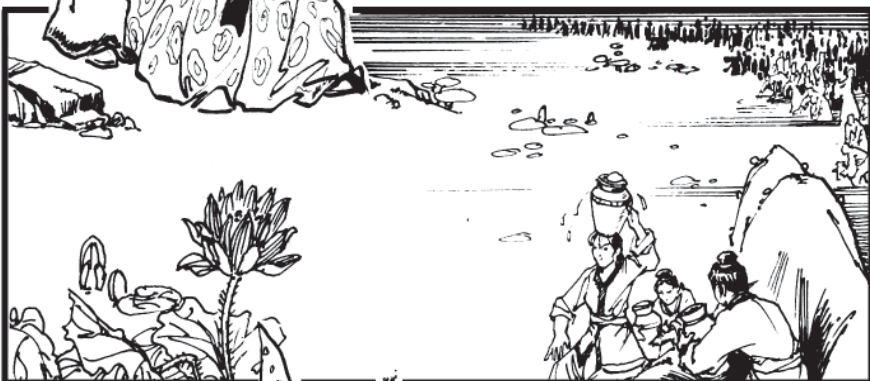
여봐라, 군졸들을 풀어서 마초와 쌀, 소금을 거두어 들이도록 해라.
여쭙기 황송하오나 마을들은 텅 비였소이다. 한시바삐 진격하여 위나암성을 차지해야 군졸들의 주린 배도 채워주고 마초도 얻을 수 있을것이오이다.

좋다. 지체말고 위나암성으
로 총진격하라.
와
와
와
와
와
와
위나암성

어딜 기여들어.
악
악ㅡ
으악

나 죽는
다.ㅡ

으악!

한나라 침략자들은 며칠동안 성을 공격하였으나
도저히 함락시킬수 없었다. 지칠대로 지친
적들은 수적우세를 믿고 성을 몇겹으로
포위하고 지연전술로 나왔다.
드디여 때가 왔구나.
그대들은 곧 놈들속에 들어가 군량은 얼마며 무엇을 노리고 우리 성을 포위만 하고 가만있는지, 군사들의 사기는 어떠한지를 알아가지고 오도록 하라.
알겠소이다.
그대들에게 싸움의 승패가 달려 있다는것을 명심하라.
우리를 믿어 주사이다.

한편
이러다가 성안의 군사와 백성들이 물이 없어 쓰러지지 않을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

여봐라, 우보를
불러오너라.
알겠소이다.

우보대감, 상감께
서 부르십니다.
상감께서?

상감께서 무슨
일로 부르실가?

우보 송옥
구 대령하였
소이다.

송옥구, 좌보는
어디 있느냐?
좌보는 성루에서 장
수들과 함께 적정을
살피고있소이다.
음, 다른게 아니라 우리가
좌보 을두지의 계책을 따른
것이 과연 옳은것인지 그대
의 생각을 알고싶어서다.
대왕님, 좌보는 좀더 기
다려보자고 하였나이다.

아직두?! 성안의 우물과 샘물이 모두 말라 백성들이 련못의 물까지 퍼내고있는걸 그대는 알고있겠지.

이제 저 련못의 물마저 마르면 우리 성안의 백성들이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될것이 걱정이로다. 그래서 짐은 우리 군사들과 백성들이 쓰러지기 전에 그대의 계책을 실현해보자는거다.

대왕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곧 실행하겠나이다.
그러되 좌보와 의논해보고 빨리 사태를 수습할지어다.

좌보가 저기 있군.

…여보게 좌보, 상감님의 뜻이 이러하오니 장차 어찌 하면 좋겠나?
우보, 우리가 노리던 계책을 써볼 때가 무르익어오는 지금에 와서 다른 계책을 쓰는것은 지당하지 못하네.
그건 무슨 뜻인가?
적들은 지금 굶주림에 허덕이고 그늘 한점 없는 허허벌판에서 무더위에 시달리고있소.
나의 계책을 써볼 때가 되였으니 상감께 아뢰여보고 다시 의논해보세.

한나라 료동태수의 군영
성안에 들여보냈던 렴탐들은 어찌 되였느냐?
모두 잡혔소이다.

여러패로 저마끔 들어갔는데 고구려군사들의 …

기찰이 심하여 그리 되였소이다.

태수, 성안의 군민들이 쓰러지기 전에…

지금 군사들이 진펄의 물을 퍼
마시고 배탈을 만나 쓰러지고있
는데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하오이다.

됐다. 조금만
더 견지하라고
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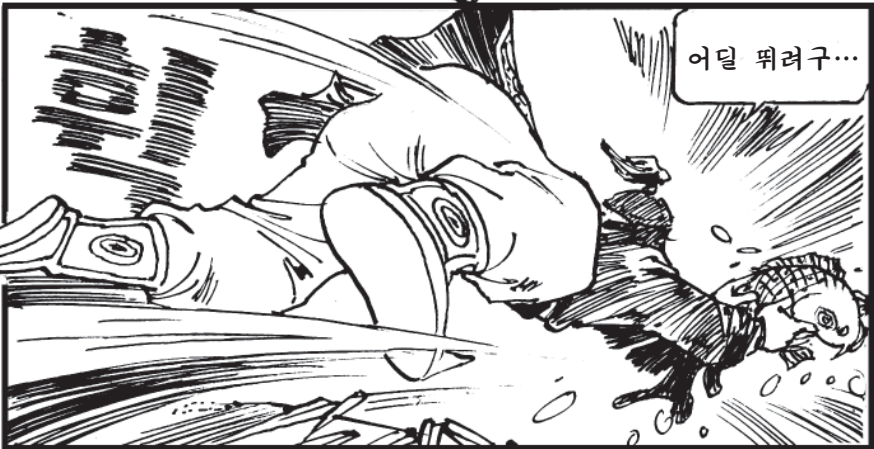
아이구

아이구, 아이
구 배야.

고구려 왕궁
대왕님, 이미 청야수성전술로 적들을 물리치기로 했으니 끝까지 그 계책대로 적을 쳐부시도록 하여주시옵소서.
좌보, 그러다 우리가 먼저 쓰러지겠다.
저에게 한가지 지략이 있사오니 그대로 싸우도록 허락해주시오이다.
그래? 그 지략을 한번 말해보아라.
대왕님, 련못의 잉어를 소신이 쓰도록 허락해주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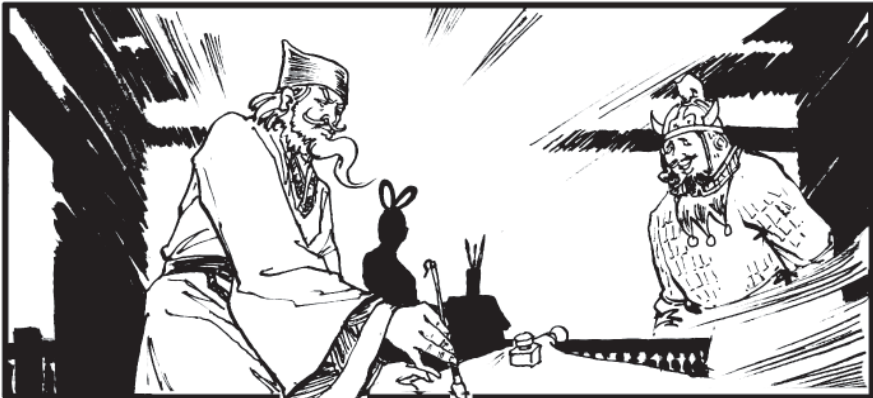
잉어라니, 그건 또 무슨 소리냐?
군사들을 여러패로…
나누어 적진에 들여보내였는데 그들이 돌아와 하는 말이 적들은 지금 군량이 떨어져 굶주리고있으며 진펄의 물을 퍼마시고 속탈이 난자들이 많다고 하오이다.
그래서?

또한 적들은 허허벌판에서 무더
위에 허덕이고있으면서도 성안에
물이 말라 우리가 쓰러지기만을
기다리고있소이다.
그런데 잉어를 가지고
어떻게 하려는거냐?
적들이 펄펄뛰는 잉어를 보면
저들의 타산이 허황한것이였음
을 깨닫게 될것 이옵니다.
그렇게 될가?
꼭 물러갈것이
옵니다.

이왕 좌보의 계책을 따른 것이니 그대의 지략대로 하도록 하자.
련못
그대들은 잉어 몇마리를 건지여 물풀로 잘 싸거라.
알겠소이다.
허, 그놈 잘 생겼군.

아이구, 놓
쳤구나.…
아…
이놈아.
하하!
어딜 뛰려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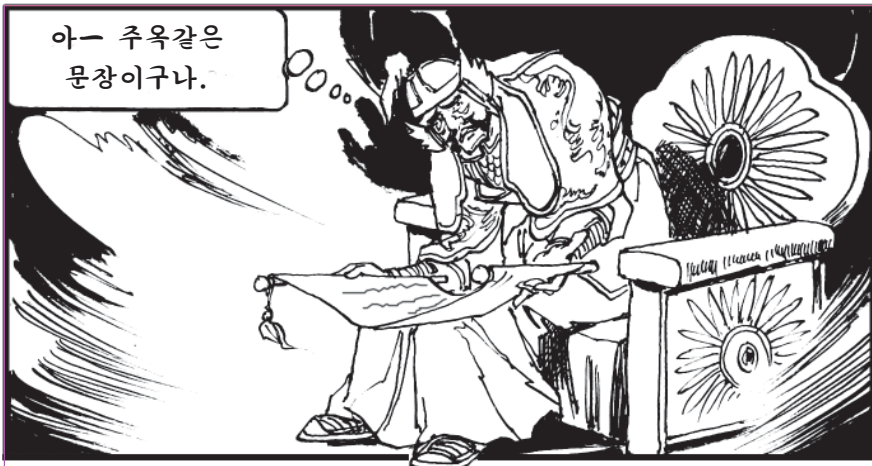
이놈이 여간 장사가 아니요. 하하하.
어서 물풀로 싸세나.

그만하면 됐다. 정히 들 싸거라.
알겠소 이다.

우보, 이 편지도 함께 보내세.
료동태수가 이 글을 보면 생각을 돌릴거네.

너희들은 이제 이 글과 함께 잉어를 료동태수에게 전하고 그의 답장을 받아오너라.
알겠소이다.
한나라 군영
어떻게들 오셨소?
당신네 태수를 만나러 왔소.
꿀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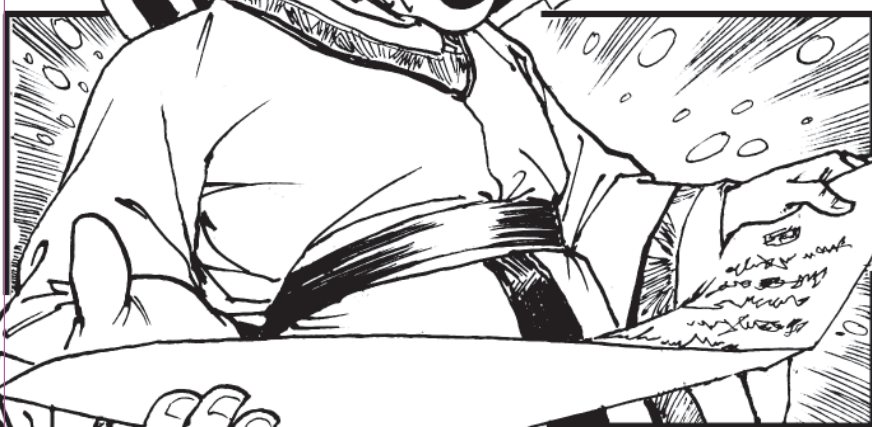
료동태수의 군막안
우리 좌보님께서 친히 쓰신 친서와 함께 물고기를…
아니?! 이게 잉어가 아니요?
자, 친서를 받소.

아— 주옥같은
문장이구나.

고구려에 재사도 과연 이런 있었는가?

답서요. 좌보님께 전해주오.
알겠소.

좌보님께서 기다리시니 걸음을 다그치세.

여보게들, 우리가 왔네.

좌보님께 아뢰오. 적장의 글을 받아가지고 왔소이다.
수고했노라.
이것이 편지오이다.
어디 보자.
…선의를 담은 음식과 함께 보내신 편지를 보고 나의 우둔함을 뉘우치였나이다. 이제 군사를 거두어 돌아가겠나이다.
료동태수

궁안
대왕님, 료동태수가 군사를 거두고 돌아가겠다는 답장을 보내왔소이다.
그래, 어디 보자.
하하하, 고금력사에 이런 전법은 찾아볼수 없을게다. 글쎄 잉어 몇마리로 적의 대군을 물리치다니… 참으로 우리 좌보의 지략은 천하에 대고 자랑할만 하다.
황송하오이다.

대왕님, 적진에 대한 기습을 준비하라던 령은 어찌하오리까?

그대 저 꼴을 좀 보라. 치지 않아도 저절로 도망치고 있으니…

하하하
기습은 해서 무엇하겠느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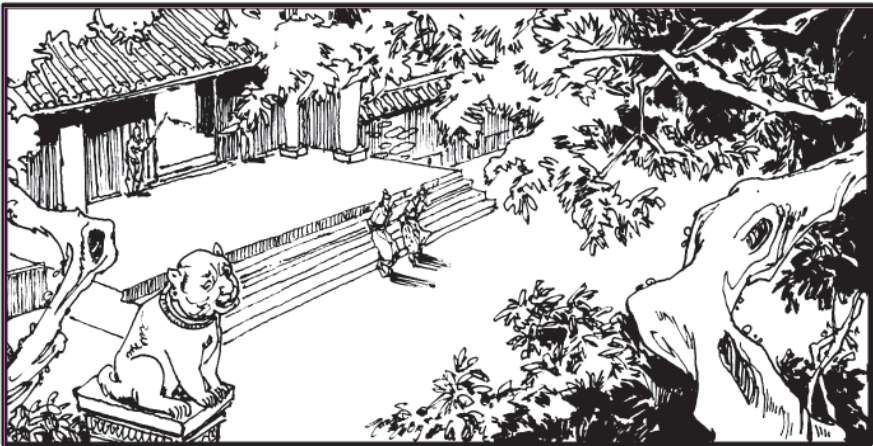
대왕님, 지금이야말로 적들을 기습하여 족쳐야 할 때이옵니다.
엉?!…

소신이 계책을 주장한것
도 바로 이런 기회를 얻자
고 한것이오니 이제야말로
우보의 계책을 쓸 때오이
다. 령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러니 이제부턴 우보
의 계책을 쓰잔 말이지?
그렇소이다.
참으로 좌보는
뛰여난 지략가
로다.

칼도마우에 올
려놓고 고기를
탕치는 격이군.
그럼 이제부터 우보
의 지략대로 하자.
좌보와 우보는
준비한대로 적들
을 족치라!
어명을
정히 받
들겠소
이다.
적들을 무자비하
게 족쳐버리겠나
이다.

이보게 좌보, 우리 군사가 적보다 적은데 기습이 가능할가?

걱정 말게, 적군이 퇴각하여 다음 성에 다달을 무렵에 위나암성의 군사들로 기습을 하세.

다음 여러 성들에 파발을 띄워 우리가 적을 기습하면 성문을 열고 맞받아치도록 알려주세.
그래서…

이렇게 여러 성의 군사들이 힘을 합치면 적은 줄행랑을 놓을걸세.
그래, 옳거니. 그러면 우리 군사들은 점점 늘어나고…
적군은 계속 줄어들겠군.
파발은 한 패에 10명씩 날랜 군사들로 띄우되…
첫 성까지는 모두 함께 가고 그 다음부터는 각기 달려도 될걸세!

그럼 빨리 서둘러야 하겠군.
빨리 다그치지 않아도 되네.
이제 군사들을 푸짐히 먹이고 푹 쉬운 다음 어둠이 깃들면 적군을 에돌아가서 매복했다가 불의에 기습을 해야 하네.
그러되 우리 성이 지척인 곳에 매복해야 그 성의 군사들과 힘을 합칠수 있네.
그래, 그 지략대로 하세.

그럼 나는 파발들과 함께 떠나 첫 성에 가있겠네. 실수가 없어야 하네.
알겠네. 어려운 길인데 부디 몸조심하게.

걸음을 다그쳐야 겠다.
알겠소이다!

한편
굶주리고 지친 적들은 좌보의 계책에 빠져 퇴각하고 있었다.

내 발은 왜
이리 무겁담.

어이구, 나는 더
못가겠네.

그래 렴탐을 보
냈던 군사들은 어
찌 되였느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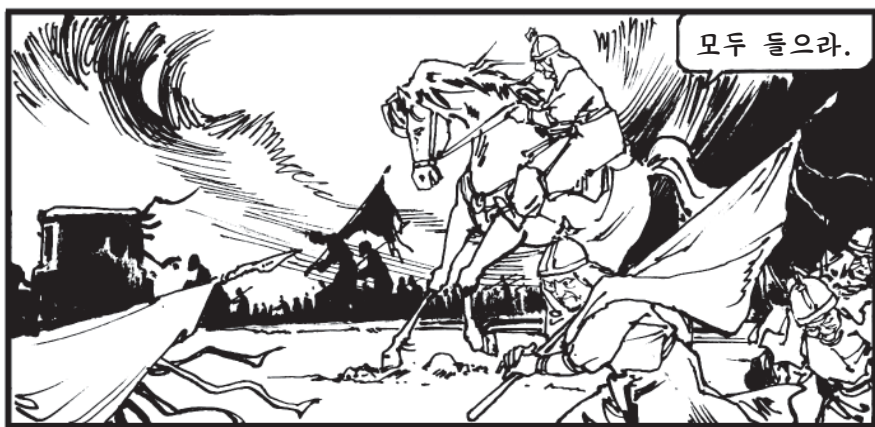
아직 돌아오지
않았소이다.

아이구
오늘밤은 여기서 숙영하자.
어이구

렴탐나갔던 군사들이 돌아왔소이다.
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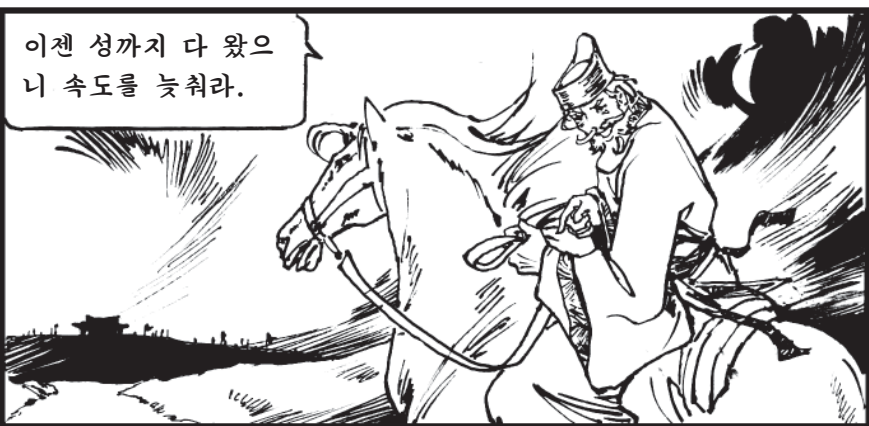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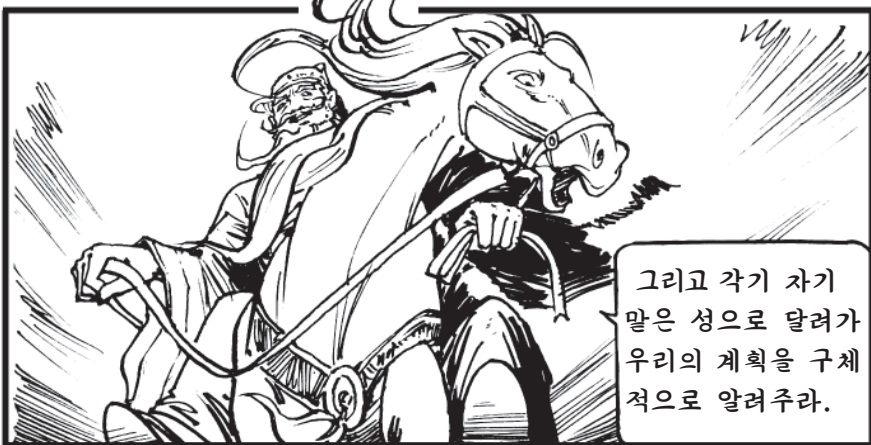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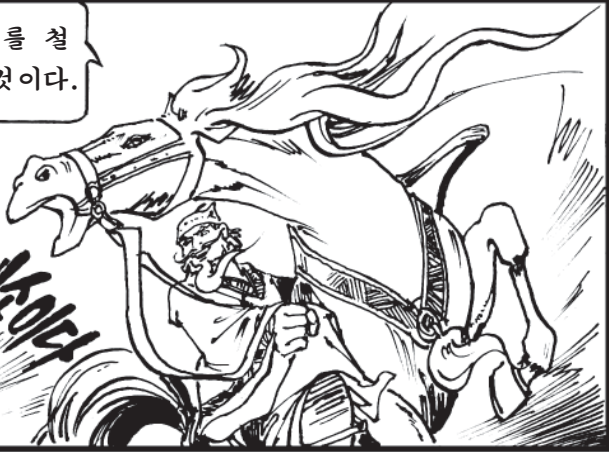
저녁무렵부터는 조용해지고 어느 성문이나 모두 굳게 닫겨져있다고 하옵니다.

그렇다. 하하하…

그것들이 초저녁부터 발편잠을 자려는 모양이군. 하하하…

내 령을 들으라. 이제 우리는 길을 떠나 적의 퇴각로를 앞질러 매복하였다가 불의기습으로 적을 족쳐야 한다.

알겠소이다

좌보께서 파발들과 함께 적진을 뚫고 먼저 떠나 다음 성에서 증원을 준비하고있다. 우리는 길을 다그쳐 날이 밝기 전에 매복을 끝내야겠다.

속도를 높여라.
알겠사오이다
한편
드디여 다 왔구나.
이젠 성까지 다 왔으
니 속도를 늦춰라.

좌보께서 힘드시나이까?
허허.
아니다. 파발들은 내 령을 들으라.
그대들은 이제 내처 말을 달려 다음 성에 가서 쉬도록 하라.
알겠소이다.
그리고 각기 자기 맡은 성으로 달려가 우리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라.

명심할것은 싸움준비를 철저히 갖추도록 하는것이다.
령대로 실행하겠소이다

다음날

우보님, 다 모였소이다.
선봉장 여러분, 드디여 때는 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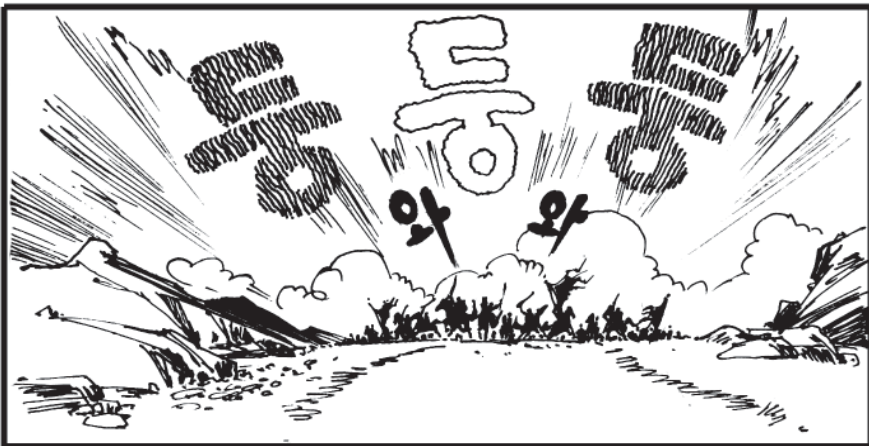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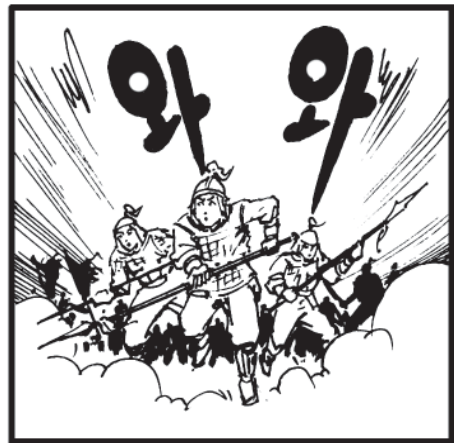
적들은 좌보님의 계책에 빠져 퇴각하고있소. 적들이 방진을 치고 퇴각하는 경우에는 먼저 화살을…
무수히 날려 적의 기를 꺾어놓은 다음 맹렬한 돌진으로 놈들을 요정내야겠소.
알겠소이다
정찰을 나간 군사들한테서는 아직 기별이 없느냐?
방금 기별이 왔소이다.

지금 적의 퇴각행렬이 방진도 없이 행군해오는데 10리밖에까지 당도하였다고 하오이다.
방진이 없다! 그럼 이렇게 하자. 기병으로 적의 머리와 꼬리를 들이쳐 적들이…
혼란에 빠지면 그때 군사들이 돌진하여 적들을 치도록 해라.
알겠소이다.

그러되 적의 장수들을 집중
적으로 사살하여 군사들을
이끌지 못하게 해야겠다.
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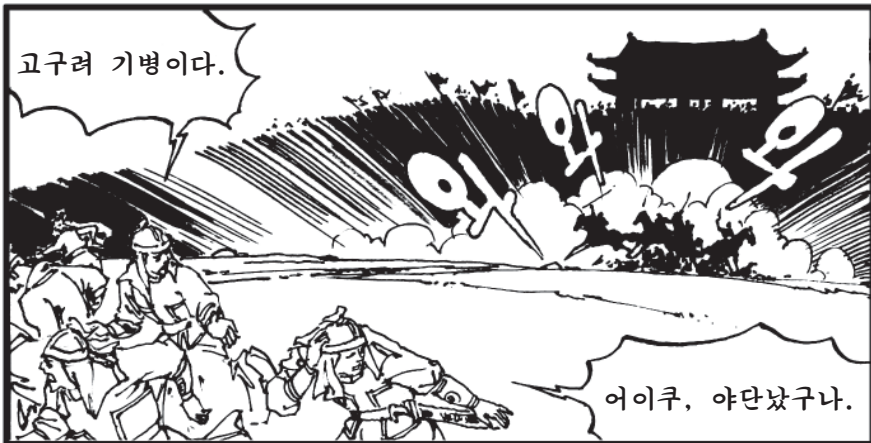
왜 이렇게 속도가 뜨
냐? 걸음을 다그쳐라.
군사들이 굶주리고
지쳐서 길을 축내
지 못하오이다.
그럼 무슨 방책
이 없느냐?
이제 조금 가면
성이 있소이다.
그럼 그 성을 일거에 함
락시키고 군사들을 휴식
시키자.

그러다 고구려군사들의 반
격을 받으면 어찌겠소이까?
?..?
하하하
고구려군사의
주력은…
위나암성에 있다. 그것들이 기
별을 받고오는 사이면 우리는
벌써 멀리에 가있을것이다.
예, 예, 참말 그렇소이다.
성이 크지 않으니 쉽사리
타고앉을것 같소이다.
둥둥둥
와 와

엉? 이건 뭐야? 고
구려 기병들이…
적들을 무자비하게 쳐라!
와
와
날 살려주…
어이쿠 살려주시우
와 와

만세
와 와
아이쿠, 이번엔 고구려 보군이 달려드는구나.
성주는 곧 성문을 열고 군사들을 이끌어 저놈들을 맞받아치라!
알겠소이다.

고구려 기병이다.
어이쿠, 야단났구나.

적장수들부터
족쳐라!

와 와

패주한 적들을
어찌 하려나?
상감께서 령을 내린대로 다음 성까지
몰고가서 또 족쳐야지. 그러면 굶주리
고 지친 적들은 꼼짝 못할걸세.
만세!
만세!
분별없이 날치는 놈은 넋을 뽑
아야 다시는 헤덤비지 못하지.
이번에 좌보의 지략을 따르지
않았다면 우리 군사들을 수많
이 잃을번 했네.
그런 말말게. 지금 적을 침
은 우보의 지략이 아닌가.
하하핫

궁안

료동의 적을 치는데서 좌보의 공이 실로 크노라.

아니옵니다. 여러 장수들과 군사들이 나라를 지켜 결사로 싸웠기 때문이옵니다.

하하하, 그대 좌보는 겸손도 하도다. 그대의 지략이 아니였으면 이 땅에 침노한 적을 그리 쉽게 전멸시킬수 없었을줄로 아노라.

하하하, 잉어 몇마리로
대적을 물리치다니…
좌보
상감마마
뛰여난 지략으로 승리를 이룩한
을두지의 공적은 강대한 고구려의
력사와 더불어 오늘도 전해지고있다.